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4. 9. 30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시40:1)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루마니아 소식 올립니다.

♣ 은혜의 시간 여름 단기선교

7월 초부터 2주동안 서울 광염교회에서 단기선교 일정을 가졌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여 19명이 참석하여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브라쇼브 주변의 교회들과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의 15군데 지역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갖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라치에서는 많은 아이들로 교회가 비좁아 실내에서 모이기 어려워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 마당에서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유별나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외부적인 조건이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며, 성령께서 일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루마니아도 서유럽화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로 사역 초창기와는 달리 아무리 복음으로 초청해도 응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든데 그렇지만 아이들, 특별히 집시 아이들은 열려 있어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들었던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갈 수 있길 기도하게 됩니다.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교회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방학을 맞아 펠디와라 교회에선 매주 목요일 청소년 제자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펠디와라 교회의 안수집사인 발레르는 식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여 마음을 다해 한 그룹의 청소년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도전을 주곤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일부 펠디와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루마니아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주동안 진행되면서 진보가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펠디와라에 사는 거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하며 한 달동안 친척들과 이웃 그리고 주민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초청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특별히 파네전도사와 3명의 안수집사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시들의 교회이지만,

리더십과 섬김, 교회 활동, 그리고 재정등의 분야에서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아라치 교회 주일학교

여름 방학 동안 토요일 오전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란 일부 청소년들에게 이번 주부터는 오르간과 기타를 가르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공통된 현상이지만 믿음으로 자라가다가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청소년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곳 아이들은 방학인 여름철엔 친척들이 있는 다른 시골 지역에 머물거나 요즘은 가을것이 감자 수확이 한창이어서 교회에 결석하는 일이 잦습니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기에 가난한 청소년들이 주말에 감자 수확과 다른 농작물 수확을 도와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초부터 성탄절까지 더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참석하기에 말씀 양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지도자들의 기도공동체

루마니아 목회자들이 매주일 모여 기도와 사역을 함께 나누며 지내왔던 것처럼, 쉽 없이 기도로 더욱 무장하길 원하며 주일학교 등의 협력을 통해 아름다운 기도공동체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족소식및 기도제목

제가 약 1개월(8월 27일-9월 23일)간의 일정으로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약해진 부분을 발견하지만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가 많은 영혼을 추수하는데 쓰임받도록
2. 주일학교 아이들이 양육과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3. 지도자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길
4.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

♣ 사역의 장면들

